

새싹 불자를 키웁시다

조계종 포교원 · 현대불교 연등캠페인

사랑으로 감싸안은 바리공주의 '孝' 감동적

우리말 꼭꼭 씹어 먹기

수업시간에 '어려운 내 나이가 어느 정도인지 '가능' 해 보세요.'라고 말했다니 학생들이 '스물여덟요.' '서른들이요.' '마흔 돌이요.' 제각각 생각을 말하더군요. 그래서 스물여덟이라고 한 학생에게 '이따 아이스크림 하나 사 주마' 했지요. 가만 생각해 보면, 형상이 있는 것이든 없는 것이든 '가능' 하는 경우가 의외로 많아요.

가능: 1. 목표나 기준에 맞고 안 맞음을 헤아려 봄. 또는 헤아려 보는 목표나 기준. '매사가 다 그렇듯이 떠 반죽도 가능을 알맞게 해야 빚기가 좋다'
2. 일이 되어 가는 모양이나 행위를 살펴서 짐작하는 것. '애초 주제와 분수를 가능 못한 무모한 것이 차차 드러났던 거였다' (이문구<오자룡>)

가재결음: 1. 뒤로 걷는 모습. 2. 일이 더디고 진보하지 못함을 비유하여 이르는 말.

발림: 1. 살살 발라 맞추는 것. '발림으로 하는 말인 줄 알지만 그래도 기분은 좋았다' 2. 판소리에서 소리를 하면서 하는 가벼운 몸짓이나 팔짓 따위. 너름새라고도 하지요.

철: 우리말에서 철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계절의 의미로 한 해를 네 시기로 나눈 중의 하나를 철이라 해요. '봄철' '여름철' '가을철' '겨울철'. 또 하나의 의미는 '철 좀 들어라' 할 때처럼 사리를 가릴 줄 아는 힘을 뜻하지요. 안명옥(시인 · 고원예고 문예창작반 강사)

논술의 자신감 이 책은 꼭 읽어야 해

한국 고전 '바리공주'

우리 고전 '바리공주'를 오페라로 만들어 공연하는 것을 본 적이 있어요. 우리나라 작품이 세계 속에서 인정받는 날이 오길 기대하는 것은 여러분도 마찬가지겠지요. 우리 것을 제대로 알아야 하는 것이지 마세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고전작품도 많이 알아야 하죠. 부모님에 대한 바리공주의 효성을 통해 우리는 부모님께 어떻게 해드려야 하는지 자신을 돌아보며 생각해 봐야 해요. 심청이 아버지의 눈을 뜨게 하기 위해서 공양미 삼백 석에 자신의 몸을 팔아 인당수에 빠졌듯이 우리 고전엔 효를 깨닫게 하는 내용이 참 많아요. 김만중은 홀로 남으신 어머니가 책 읽는 것을 좋아하자 <구운몽>, <사씨남정기>와 같은 소설을 써서 어머니를 기쁘게 해 드렸다고 하죠.

삼나라의 오구 대왕은 무당이 말했는데도 길대 부인을 왕비로 맞아 딸만 여섯을 낳았다. 마지막 일곱 번째 아기도 딸이라고 하자 내다 버리라고 했다. 버려진 바리공주는 바리공덕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정성들여 길러 열다섯 살이 되었다. 그러나 그때 왕과 왕비는 깊은 병에 걸렸다.

왕과 왕비의 병을 낫게 할 수 있는 약수를 구해 줄 사람이 없어 걱정할 때, 까치의 도움으로 바리

공주는 왕과 왕비를 만나게 되었다. 약수를 구하기 위해 길을 떠난 바리공주는 멀고 먼 길을 고생해 가면서 서천 서역국까지 갔다. 다시 그곳에서 9년간 고생을 하여 마침내 신선에게 약수 두 방울을 얻어 왔다. 막 숨을 거둔 왕과 왕비를 약수로 살려내고, 바리공주는 다시 서천 서역국으로 가서 죽은 사람들의 넋을 서천 서역국으로 인도하는 일을 했다.

이상이 바리공주 이야기의 개요예요. 책을 읽을

남아 선호사상 바탕위에 용기있는 여성상 표현

때 등장하는 인물들 잘 살펴보는 것도 의미가 커요. 오구 대왕은 아들이 아니라고 자신의 자식을 내쫓는 것으로 보여 냉정하고 인정이 없지요. 남녀 차별이나 남아 선호사상이 들어있어 여성들이 씁쓸하겠지요. 자식을 사랑할 줄 모른 사람이죠. 또한 나중에 후회할 일을 깊이 생각하지 않고 기분에 따라 해 버리는 것으로 보여 경솔하고 성격이 급하다고 생각되어요.

길대 부인은 오구 대왕의 명령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딸을 버리지만 마음 아파하는 것으로 보여 마음씨가 곱고 착하지만 더 강한 여성상이었으면 좋았을 거예요. 바리공주는 자기를 버린 부모를 위해 멀고 험한 길을 떠나 약수를 구해 오는 것

로 보아 효성이 지극하고 용감하지요. 여러분도 강하고 용기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해요. 바리공주는 남을 사랑할 줄 아는 넓은 마음씨를 가졌어요. 서천 서역국으로 가는 길에 여러 사람을 도와 주는 것으로 보여 마음씨가 착하고 굽지도. 바리공덕 할머니와 할아버지도 버려진 아이를 친자식 처럼 정성껏 키우는 사랑을 베풀 줄 알고 인정이 많은 사람이죠.

오구대왕은 왜 그렇게 아들을 바랐을까요? 삼나라의 대를 잇기 위해서겠지요. 아들이 있어야 오구 대왕의 대를 이어 왕이 될 수 있었던 시대니까요.

이 글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을 해 보세요. 버려지지 않은 여섯 공주들은 왜 서천 서역국으로 약수를 구하러 가려하지 않았을까. 심내 남게 버려져 지내다가 부모를 만나면 어떤 생각이 들까. 십오 년 간 정성들여 키운 바리공주를 떠나보내는 바리공덕 할아버지와 할머니의 심정은 또 어떨까. 바리공주가 구해온 약수로 다시 살아난 오구 대왕의 마음은 어땠을까.

부모님의 병을 낫게 하는 유일한 방법이라도 아무리 힘들어도 구하려 갔을 것이라는 답이 들리는 것 같네요. 섬세하고 아쉬우나 한편 공경로 가서 잘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면 기쁘기도 했을 바리공덕 할머니의 마음을 전해오는 학생도 있네요. 바리공주가 아무리 힘든 일이라도 남에게 미루지 않고 먼저 앞장 서 도와주고 해결해 나가듯. 자신을 버린 부모님을 위해 서천 서역국까지 멀고도 험한 길을 떠나 약수를 구해 오듯. 부모님에 대한 나의 효성을 되돌아보는 시간은 어떨까요?

우리들 생각

'우리들의 생각' 코너는 사찰 계사편에 올라온 어린이, 청소년들의 목소리를 담은 공간입니다. 불교계에 바라는 점, 입시상담과 교우문제 등 주제 · 형식을 벗어난 여러분의 직접 참여할 수도 있습니다. (접수 e-메일:rolling@paran.com)

엄마의 재혼 '싫어요'

고등학교 1학년 여학생이에요. 요즘 엄마가 재혼하시려는 것 같아요. 그 생각 때문에 공부도 안 되거든요. 지금까지 엄마랑 둘이서 잘 살아왔는데, 왜 재혼하려는지 모르겠어요. (ID:honggal7)

서로 마음을 확인하는 시간을 가지세요

엄마와 참 사이좋은 딸인 것 같네요. 그러다보니 갑작스럽게 엄마의 행동이 달라지고 엄마 남자친구 이야기가 나와서 많이 당황되고 왠지 엄마를 누군가에게 뺏기는 것 같아서 싫은 감정도 생길 것 같아요. 지금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 때문인지 잘 생각해 보세요. 불안하고 혼란스러운 마음 뒤에 친구의 생각을 잘 살펴봐서 일단 엄마의 재혼 문제에 대해 감정적인 반응을 어느 정도 정리해 보세요. 고등학교생이라면 자기 자신에 대한 감정이나 상황 판단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지금 당장 친구의 입장을 엄마에게 이야기해 야 하는 것도 아니고 결정해야 하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시간을 두고 차근차근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생각과 감정을 어느 정도 정리하고 이해한 다음에는 어머니의 입장에서 이 문제를 한 번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어머니도 그동안 혼자서 친구를 기르느라 많은 고생을 하셨을 거예요. 경제적으로 심리적으로 혼자서 모든 걸 감당한다고 말씀은 안하셔도 어려움이 많으셨을 겁니다. 힘든 일도 많으셨을 거고 그럴 때마다 터놓고 이야기할 사람도 없고 기릴 사람도 없으시고 오로지 혼자서 모든 걸 이겨 내시고자 입술을 깨물면서 노력해 오셨을 겁니다. 엄마도 격려를 해주고 위로를 해줄 사람이 필요한 거죠. 엄마와 함께 이 문제에 대해서 솔직하게 이야기를 해볼 수 있는 기회를 가져보세요. 엄마에게 친구의 생각을 전달해 보고 엄마의 마음은 어떠한지 들어보세요. 쉬운 일은 아니지만 엄마와 함께 좋은 해결책을 찾아가 보세요. (한국청소년사이버상담실)

아름다운 등

찬덕연등이 개발한 새로운 개념의 신상품
영구위패 · LED 인등 · LED 전구

전선(케이블) - 찬덕연등에서 시공한 사찰 (대한불교천태종 광수사 법당)

자동 승강 장치(등보 조정 작업) 연등 자동 승강장치 작동

※ 이제는 법당 연등 설치도 버튼 하나로 해결하세요.

찬덕연등에서는 **KS케이블**을 사용하여 가장 안전하게 전문 기술인에 의해 **직접 감독 시공**합니다.

외부에 시공된 전선케이블

광고: 찬덕연등에 사용된 캐릭터는 상표특허등록된 캐릭터입니다. 캐릭터 도용시에는 법적제재조치가 있음을 공고 합니다.

영가주름등 영가접등 영가공단등

칼라(보카시)연등 공단등 중등 팔각봉축접등 주름등(만월봉축등) 청사초롱

LED 인등

영구위패

*사찰명 인쇄 시 30일 전에 전화신청 해 주십시오.

경기도 하남시 교산동 132-1 / 전화: 031) 792-6288, 794-4055 / 팩스: 031) 794-6288
www.chanduk.com / 취급품목: 연등 · 주름등 · 전선시공 · 영구위패 · LED인등 · LED전구

• 기존 전기요금의 10% 정도가 소모
• 불빛이 사방으로 퍼져 화려한 밝기가 특징

• 열 발산이 적어 화재의 위험성이 적음
• 사찰에서 원하는 규격에 맞추어 제작해 드립니다